

2019년 2월 26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반도체, 금융업종 상승 주도 트럼프, “국제유가 너무 급등하고 있다”

### 종목 장세 이어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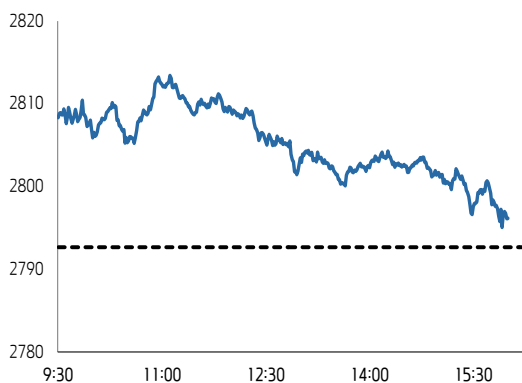
미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데드라인 연장을 언급하자 상승 출발. 특히 금융주가 워렌 버핏의 긍정적인 언급에 힘입어 상승 주도하고, 반도체 업종이 낙관적인 무역협상에 기대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 다만, 그 외의 종목들은 매물 출회되자 상승폭이 축소(다우 +0.23%, 나스닥 +0.36%, S&P500 +0.12%, 러셀 2000 -0.08)

미 증시 특징은 반도체,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에너지를 비롯한 그 외 업종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차별화가 이어짐.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요인은 낙관적인 무역협상으로 중국 수요 증가 기대감이 유입으로 추정. 반도체 산업은 2018 년 하반기 이후 광범위한 수요 감소 영향이 컸음. 특히 미국 산업 중 대중국 수출이 가장 많은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 무역협상 소식에 변화폭이 컸음.

한편,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점은 국제금리 상승과 워렌 버핏의 금융주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주요 요인이었음. 국제금리는 무역협상 기대감 및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올해 한차례 금리인상을 예상한다” 라고 주장하자 상승. 금융주는 워렌 버핏이 자신의 포트를 언급하며 JP 모건등 대형 금융주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주장하자 강세.

반면, 국제유가가 3% 넘게 급락하며 에너지 업종 하락 요인으로 작용.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며, 세계는 유가 급등을 받아들이기에는 취약하다” 라고 주장하자 하락. 또한, 코카콜라를 비롯한 소비재 업종은 크레프트하인즈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부진. 이렇듯 미 증시는 개별 업종에 대한 이슈 여파로 상승과 하락이 갈리는 종목 장세가 이어진 양상. 이는 파월 연준의장(26,27 일), 라이트하이저(27 일)의 의회 청문회, 북미정상회담(27,28 일) 등 주요 이슈를 앞두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0.09	2,232.56	홍콩	28,959.30	+0.50		
KOSDAQ	+0.94	750.40	영국	7,183.74	+0.07		
DOW	+0.23	26,091.95	독일	11,505.39	+0.42		
NASDAQ	+0.36	7,554.46	프랑스	5,231.85	+0.31		
S&P 500	+0.12	2,796.11	스페인	9,204.30	-0.00		
상하이종합	+5.60	2,961.28	그리스	686.77	+1.46		
일본	+0.48	21,528.23	이탈리아	20,436.96	+0.8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반도체, 금융주 강세

AMD(+1.44%), 마이크론(+0.40%), 인텔(+1.16%), 브로드컴(+0.76%) 등 반도체 업종은 낙관적인 무역협상에 기대 강세를 보였다.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칩 수요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2% 상승했다. 캐터필라(+1.97%)도 낙관적인 무역협상 소식으로 상승했다. 보잉(+0.67%), 3M(+0.59%)등도 동반 상승했다. GE(+6.39%)는 바이오사업부문을 214억 달러에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후 급등했다.

워렌 버핏이 크레프트하인즈(-2.06%)가 전일 대규모 손실 발표 이후 맥스웰하우스 부문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편 애플(+0.73%)은 워렌 버핏이 최근 매각은 자신이 아니라 별도의 포트를 운영하는 웨슬러가 매각했다고 언급하며, 향후 가격이 싸지면 다시 매수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또한 BOA(+0.65%)과 JP모건(+1.05%) 등 대형 은행주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언급하자 웰스파고(+1.31%), 씨티그룹(+0.61%), 골드만삭스(+1.35%) 등과 더불어 상승했다. 특히 국채금리 상승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16%	대형 가치주 ETF(IVE)	+0.20%
에너지섹터 ETF(OIH)	+0.81%	중형 가치주 ETF(IWS)	-0.17%
소매업체 ETF(XRT)	+0.33%	소형 가치주 ETF(IWN)	-0.26%
금융섹터 ETF(XLF)	+0.42%	대형 성장주 ETF(VUG)	+0.16%
기술섹터 ETF(XLK)	+0.48%	중형 성장주 ETF(IWP)	+0.1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35%	소형 성장주 ETF(IWO)	+0.30%
인터넷업체 ETF(FDN)	+0.28%	배당주 ETF(DVY)	-0.15%
리츠업체 ETF(XLRE)	-0.8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89%
주택건설업체 ETF(XHB)	-0.4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78%
바이오섹터 ETF(IBB)	+2.03%	미국 국채 ETF(IEF)	-0.15%
헬스케어 ETF(XLV)	+0.14%	하이일드 ETF(JNK)	+0.11%
곡물 ETF(DBA)	-1.19%	물가연동채 ETF(TIP)	-0.07%
반도체 ETF(SMH)	+0.89%	Long/short ETF(BTAL)	-0.4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4.13	+0.15%	-0.36%	+4.18%
소재	351.44	+0.65%	+2.94%	+5.63%
산업재	642.33	+0.38%	+1.02%	+8.92%
경기소비재	870.98	-0.31%	+0.68%	+2.82%
필수소비재	558.00	-0.51%	-0.10%	+5.11%
헬스케어	1,070.57	+0.05%	-0.28%	+4.02%
금융	439.97	+0.42%	+0.51%	+1.93%
IT	1,242.99	+0.49%	+1.90%	+7.34%
커뮤니케이션	154.41	+0.08%	+0.74%	+3.83%
유틸리티	286.47	-0.65%	+1.70%	+5.81%
부동산	215.39	-0.81%	-0.64%	+4.7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종목 장세 이어질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8% MSCI 신흥 지수 ETF 도 1.12%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029 계약)에 힘입어 0.35pt 상승한 289.9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5.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중국 증시는 21 일 증감위가 '자본시장 거래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감세(거래세, 배당세, 양도소득세)관련 의견 수렴안이 발표되는 등 증시 부양책이 발표되자 증권주가 대부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자 급등 했다. 더불어 은행들의 WM 관련 자회사 승인 건수가 증가하는 등 증시 유동성 증가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줬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이 중국 증시 급등 주요 요인 이었다.

전일 한국 증시는 이러한 중국 증시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에 그쳤다.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졌음에도 외국인의 차익매물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추정한다. 결국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은 주요 변화요인을 앞두고 개별 국가별, 업종 및 종목별 이슈에 따라 매매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언급된 반도체 및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이번 주 주요 이슈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전일에 이어 오늘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도매재고 증가

2 월 달러스 연은 지수는 전월(1.0)이나 예상치(4.8)을 크게 상회한 13.1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11.6→6.9)가 부진했으나, 고용지수(6.6→12.6)은 개선 되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지역의 원유 생산 업체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월 미국 도매재고는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전월 발표치(mom +0.4%)는 물론 예상치(mom +0.3%) 보다 양호한 결과였다.

1 월 시카고 국가활동지수는 전월(0.05) 보다 둔화된 -0.43 으로 발표되었다. 산업생산 부진 여파다. 3개월 평균은 전월(0.16)과 같은 0.16 으로 발표되었다.

애틀란타연은은 GDPNow 를 통해 4 분기 GDP 성장률을 도매재고 급등을 기반으로 1.9%로 상향 조정 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여파로 급락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가 너무 급등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예상보다 많은 감산을 발표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경고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최근 OPEC 이 러시아 등 비 OPEC 국가들에게 감산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청했다는 점을 감안 트럼프발 하락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공급 감소에 이어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속에 수요 증가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하락폭 제한 요인 중 하나다

달러화는 엔화 약세 및 유로화, 파운드화 강세 여파로 혼조세를 보였다. 엔화는 미·중 무역협상 데드라인 연기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영국 노동당이 브렉시트 관련 2차 국민투표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보스티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올해 경기 개선을 감안해 한차례 금리인상을 예상한다” 라고 주장하자 상승 했다. 더불어 미·중 무역협상 데드라인 연장 소식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1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4 배) 보다 약한 2.40 배를 기록했으나 영향은 제한적이였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며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매물 출회되며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53%, 철근도 0.30%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5.48	-3.11	-0.89	Dollar Index	96.415	-0.10	-0.50
브렌트유	64.76	-3.52	-2.62	EUR/USD	1.1361	+0.23	+0.44
금	1,329.50	-0.25	+0.56	USD/JPY	111.06	+0.33	+0.40
은	15.928	-0.52	+0.56	GBP/USD	1.3099	+0.35	+1.35
알루미늄	1,906.00	-0.37	+2.69	USD/CHF	1.0004	0.00	-0.45
전기동	6,480.00	+0.03	+3.27	AUD/USD	0.7171	+0.59	+0.58
아연	2,719.00	-0.18	+3.07	USD/CAD	1.3191	+0.43	-0.37
옥수수	380.00	-1.17	-0.72	USD/BRL	3.7471	+0.01	+0.30
밀	472.75	-3.86	-6.76	USD/CNH	6.6828	-0.40	-1.34
대두	925.00	+0.14	+0.38	USD/KRW	1121.00	-0.37	-0.43
커피	99.85	-0.15	-1.77	USD/KRW NDF1M	1115.41	-0.63	-0.90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666	+1.44	+0.36	스페인	1.159	-1.30	-6.60
한국	2.015	+1.30	+1.80	포르투갈	1.462	-2.00	-4.60
일본	-0.035	+0.20	-1.30	그리스	3.766	-3.10	+1.00
독일	0.108	+1.20	-0.20	이탈리아	2.771	-7.30	+0.70